

“혁신도시, 가장 급한건 좋은 학교”

나주 이주 대상 임직원 워크숍 “주민참여형 평생학습도시로”

나주에 건설 중인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교육 타운 기능을 갖춘 자족형 교육거점 도시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민의 특화된 교육시설을 조성해 이전기관들이 기꺼이 이주하고 싶은 명품도시로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3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담양리조트에서 국토해양부 및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전남도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계기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혁신도시를 지역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되는 자족형 교육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실장은 이날 ‘자족형 교육거점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비전 및 목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교육체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개발전략을 마련, 참여형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계획된 스킴플렉스(여러 종류의 교육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하나의 단위 또는 긴밀하게 연결된 시설)나 학교공원 등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 특성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실장은 “우수한 멘토 확보 및 운영을 통한 학교외교육 활성화, 근로 가능한 연령층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 성인교육 선진화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우수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도 ‘혁신도시 선진교육인프라 구축 방향 및 시설 배치계획’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에너지클러스터, 농생명클러스터, 정보통신클러스터, 문화예술클러스터로 조성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이들 기관에서 조성한 지원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친환경적 유비쿼터스 환경이 조성되는 혁신도시에 걸맞는 친환경 교육 시설 및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는 게 손 교수의 지적이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도 ‘혁신도시 교육여건분석 및 벤치마킹 사례분석’

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63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 구성원 중 초·중·고 자녀 비중이 응답자(2539명)의 54.9%를 차지하고 양질의 교육시설 확충(56.3%)을 이주시 가장 고려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광고에듀타워, 행정 중심복합도시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기업이 교육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교육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절실히 되고 학교시설 복합화나 공원·유수지 등 공공시설을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등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데만 영웅들 격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이데만 여명적전 유공자 환영식을 마친 후 이데만의 영웅들과 대정원을 거닐고 있다.



천안함 46용사에 분향

백령도를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헌화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군 1955년 DMZ에 고엽제 항공 살포”

예비역 상사 음도남씨 국내 첫 증언

미군이 1950년대 중반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국내 첫 증언이 나왔다.

육군상사로 퇴역한 음도남(77·연천군 신서면)씨는 “입대 이듬해인 1955년 육군 15사단 백마고지(강원도 철원군)에서 근무할 당시 미군이 헬리콥터 등 항공기로 한달에 서너차례 DMZ에 고엽제를 공중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씨는 당시 백마고지에서 한달 가량 근무하다 휴방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의 증언은 그동안 ‘1960년대말 미군 주도하에 DMZ에 고엽제 대량 살포’로 알려졌던 것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음씨는 당시 고엽제 살포는 미군이 독자적으로 했으며 한국군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미군 비행기

에서 뿌리는 약을 맞으면 좋지 않으니 한국군은 방독면과 우의를 착용하고 방공호로 들어가라고 했다”며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는 풀과 나무가 발길에 타들어갔다”고 기억했다.

당시 전방에는 지금 휴전선과 달리 철책과 경비 시설물이 없이 철조망 달린 울타리 2개가 전부로 교전이 빈번했고 ‘간첩이 넘어와 국군 목을 베어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적이 몸을 숨길 수 있는 풀과 나무를 없애는 일은 목숨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음씨는 전했다.

고엽제 전문가 앨빈 영 박사가 2006년 작성한 ‘전술 제조제의 시험, 평가, 저장’을 위한 국방부 계획의 역사’와 미국 참전용사단체인 ‘용사를 돕는 용사회(Vets Helping Vets)’가 공개한 미 정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

은 2차세계대전 때부터 고엽제를 연구했고 1952년 한국전쟁 배치를 앞두고 퍼플이라는 이름의 고엽제와 함께 공중살포장비를 개발했다.

또 비슷한 시기인 1956년 2~6월 푸에르토리코에서 제조제를 실험한 것으로 나타나 음씨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후 음씨는 연천군 신서면 천덕산 인근에서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1967년 두번째로 고엽제를 접했다. 그는 미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대장 지휘 아래 고엽제 분말을 적어 침투로 활약할 만한 곳에 맨손으로 퍼서 뿌렸다고 했다.

음씨는 20여년전부터 손가락 끝마디가 구부러지고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에 시달리다 지난 2007년 ‘국내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받아 국가보훈처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北 “南정부와 상종 안해… 동해 군 통신선 차단”

“금강산 통신연락소도 폐쇄”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30일 남한 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해 군(軍)통신선을 차단하고 금강산 지구 통신연락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

국 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공세는 무자비한 공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이어 “반공화국 심리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한 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 물리적 대응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성명은 남한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관련, “제 나름의 판단대로 스스로 망할 때까지 그 무슨 ‘원칙론’을 고수하며 ‘기대립 전략’에 따라 급변사태를 실패 기다려 보라는 것”이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변역의 길에 인위적인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 이명박 역적패당”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從北카페’ 글 장교·사병 등 7명 내사

기무사 “충성 맹세문 없어”

국군기무사령부가 충북(從北) 카페에 가입한 군인 회원 70명 중 글을 올린 초급장교와 사병 등 7명을 집중적으로 내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30일 “경기경찰청에서 적발한 인터넷 충북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장교 26명과 부사관 등 7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기무사가 확인했다”면서 “이 가운데 초급장교와 병사 등 7명이 이 카페의 ‘충성맹세문’ 코너에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돼 집중적으로 내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카페에 올라온 댓글 중에 김

2022년 모든 원전 폐쇄 독일 집권연정 합의

양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집권 연립정부가 원전 가동 중단 시기에 대한 의견을 해결하고 2022년까지 자국 내 원전을 모두 폐쇄하는 데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노르트베르트 튀트겐 독일 환경장관은 전날 밤늦게 베를린에서 집권 기민당(CDU)과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 기민당의 바이에른주 자매당인 기사당(CSU)이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정은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기존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가동시한을 평균 12년 연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1999년 공사 설립 후 처음으로 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30일 “강운태 광주시장이 도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가 최근 사장 후보자 1순위로 추천한 홍기남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홍 국장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어서 임명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홍 국장이 지난해 초 남구

광주도시공사 사장 사상 첫 직무대행체제

청 부구청장 재직 시 잡음이 일었던 남구 금고 선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면서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 공무원’은 퇴직할 수 없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오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

영진 도시공사 사장 대신 심상문 경영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했다.

또 심상문 경영본부장도 다음달 12일 임기가 끝나게 돼 감사원 감사가 장기화될 경우 내달 13일부

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경영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장뿐 아니라 사장 직무대행이 신임 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 임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홍 국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구간 1코스 서두터(새만금전시관) ~ 송포

1구간 2코스 송포 ~ 성천

1구간 3코스 성천 ~ 격포항

2구간 1코스 ...

2구간 2코스 ...

3구간 1코스 ...

3구간 2코스 ...

4구간 ...

파도소리 들으며, 노을을 감상하며 걷는 변산마실길 17코스

새만금에서-격포-모항-곰소-출포까지 전구간 66km 개통

마실은 ‘마을’을 뜻하는 단어로 전라도에서는 이웃집이나 이웃마을에 놀러 갈 때 ‘마실간다’라고 한다. 이웃들이 한데 모여 즐거운 놀이도 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정겨운 시골 풍경이다. 변산반도 해안을 따라 파도소리 들으며, 노을을 감상하며, 그림 같은 해안 경관과 아직은 때 묻지 않은 포구마을의 인심과 만나며 걸을 수 있는 변산마실길은 새만금에서 출포까지 4구간 8코스 총길이 66km가 새롭게 조성되었다.

1구간: 노을길(새만금전시관-격포항, 18km, 6시간)

2구간: 체험길(격포항-해미어촌유원-모항갯벌체험장, 14km, 4시간)

3구간: 문화재길(모항갯벌체험장-곰소염천, 23km, 6시간)

4구간: 자연생태길(구진-출포자연생태공원, 7.5km, 2시간)